

## 농림수산식품부

### 올 겨울 및 봄철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 높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야생철새 및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AI 상시 예찰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항원 및 항체)는 불검출, 다만 저병원성이 전년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시가 발생한 인도네시아(2012. 10. 14), 호주(2012. 11. 9, 1997년 이후 15년 만에 발생)로부터 야생철새가 3~4월경 우리나라로 유입(일명 : 여름철새)이 예상되어 올해 봄에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집중예찰 등 조기 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운영, 가금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상시점검 강화, 농가중심 자율 방역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입되는 야생철새의 분변 및 폐사체 검사를 약 33%(6천건→8천) 증가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AI 특별방역대책 기간(2012. 10~2013. 5) 중 무작위로 시·군을 선정하여 장·차관(월 1회), 중앙기동대응반(주 1회) 및 농식품부 현장 담당관(102명, 월 2회)으로 하여금 농가의 소독·예찰 실태를 점검하여 소홀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 유관기관, 지자체별 유사 시 초동 방역 능력 제고를 위해 사전에 예고 없이 불특정 시·도(시·군·구)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가상 방역 현장훈련(CPX)을 정례화(상·하반기)하는 한편, 농가 중심의 자율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 지자체 및 중앙정부 합동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전파우려 대상자에 대한 순회 교육(상·하반기)을 강화하고 홍보물(포스터, 6만부)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AI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5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AI 특별방역대책 기간(2012. 10 ~ 2013. 5) 중 가금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축사간 이동 시 신발 갈아 신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및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했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수입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입 전(前)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또한 수입과정 중 부적합된 제품에 대한 세부정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쇠고기 등 육류를 생산하는 해외 작업장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前)에 우리 정부의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이미 승인된 해외 작업장은 정기적인 현지점검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질파테롤 검출 등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해외 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질파테롤은 가축의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 목적으로 사료첨가제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에서는 심박수 증가, 기관지 확장 등을 유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또한 축산 식품의 국내 수입단계에서는 서류 검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도 수입 축산식품 정밀검사 계획은 수입 예상 건 대비 육류 6,000건(9.8%), 가공품 3,093건(15.2%)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식품이 발생할 경우, 정밀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검사결과 부적합 축산식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해당 축산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체, 사유 등 세부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식품에 대한 검역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축산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축산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를 통하여 정밀검사 강화,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중단 등 조치로 유해 축산물에 대한 긴급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홈페이지 : [www.qia.go.kr](http://www.qia.go.kr)

## 농촌진흥청

### 한국가축사양표준 활용으로 선진축산 초석 다져

농촌진흥청(청장 박헌출)은 지난 10년간(2000~2010) 우리나라 가축의 체중과 산유량, 산란능력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우 거세우는 24개월령 체중이 545kg에서 656kg으로 20% 향상됐고, 젖소의 305일 기준 산유량은 8,086kg에서 9,563kg으로 18%, 육계의 6주째 체중은 2.3kg에서 2.6kg으로 13%, 산란계의 산란율은 82%에서 89%로 9% 향상됐다.

육계는 부분육 및 해외 수출 규격에 적합한 대형육계 생산을 위한 영양·사양관리 기술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0년간 가축 생산성이 이렇게 향상된 것은 체계적인 가축개량과 과학적 사양관리에 따른 것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다변화하고 있는 축산물의 맛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대별 가축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요구량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축 사료급여 관리 기술의 선진화 척도는 가축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각 영양소의 양을 제시하는 국가 사양표준의 보유 유무와 그 정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미국 등 선진축산국은 40~60년대부터 사양표준을 제정해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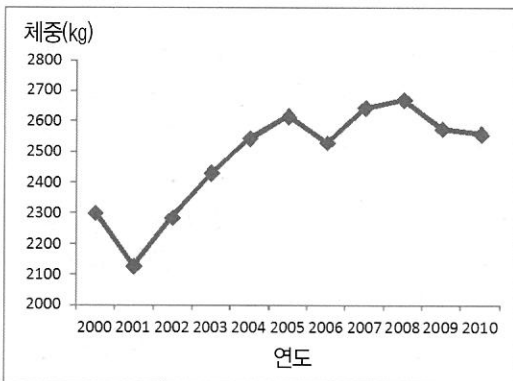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2002년 한우, 젖소, 돼지, 가금 사양표준을 제정했으며, 2007년과 2012년 2차 개정을 통해 가축의 영양소요구량 정확도

를 높였다.

축산농가에서 가축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기초해 사료급여량을 결정하면 과거처럼 생산 안전성을 염려하여 10%를 추가 급여했던 사료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약 8,500억 원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환경규제 관련 국제기구가 분뇨 및 메탄과 같은 배출량 산출을 위해 요구하는 가축의 영양소 섭취량 국가 통계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지난 10년간 농업 중 축산업 비중이 24%에서 40%로 상승한 것은 체계적인 가축 개량노력과 과학적인 가축의 영양관리 기술 개발이 크게 기여한 결과”라며,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축산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육계 6주 체중 변화〉

### ‘100문 100답집’으로 축산농가 궁금증 해결

농촌진흥청은 축산 농가가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젓소, 돼지, 닭, 조사료 등 4개 분야로 나눠 문답식으로 설명해주는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100문 100답집’을 발간했다.

이는 최근 2년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이 축산분야별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며 농가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축종별 사육 및 조사료 재배기술을 모아 엮은 것으로 기존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는 물론 새롭게 귀농귀촌을 해 축산을 준비하는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닭 기르기 100문 100답집」은 육종, 번식, 종자보존과 관리, 사양관리, 항생제 대체제 이용, 계사시설과 환경관리, 품질관리, 위생과 질병, 경영관리 등 양계의 다양한 분야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진현주 박사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과거 축산농가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축산농가 현장기술수요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에서 애로기술에 대한 해결의 결과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현장적용 기술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 DB 품질개선사업 완료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20여 년간 축적된 축산정보(등급판정, 이력정보)가 2012년 6월 국가중요DB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12년 공공정보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축산유통정보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으로 DB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표준화, 통계정보 표준화, DB품질관리체

계 등을 정립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품질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여 국가 중요DB의 품질개선 및 국가차원의 품질관리체계 확립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1차년도) 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DB가 고도화 추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최형규 원장은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개선을 통하여 축산물 품질정보 등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축산물 유통전문기관으로 보다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평창영월정선축협과 MOU 체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은 지난 1월 17일 용평리조트에서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 김영교)과 '축산물HACCP Chain 완성거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전(全)단계 HACCP 적용 축산물 공급체계(farm to table HACCP chain system)를 완성, 2018년 동계올림픽에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기준원은 평창영월정선축협 직원 및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HACCP 교육을 개설하고 전담 심사관을 지정배치하여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평창영월정선축협에서는 HACCP 관련 현장업무 지원, 교육장 등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조규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전(全)단계 HACCP적용 축산물 공급체계가 구축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기념비적인 발자취가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삼아 전 단계를 아우르는 HACCP 전용유통망이 전 국토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첫 발자취를 남기자"고 다짐했다.

평창영월정선축협 김영교 조합장은 "철저한 사양관리와 계열화 사업 시스템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해온 '대관령한우'와 축산물 위생·안전을 선도하는 기준원간의 MOU 체결은 '대관령한우'가 더욱 우수한 한우브랜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축산물HACCP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